건강한 자돈을 위한 **스마트**한 솔루션

포세리스™

➤ *건강한 출발을 위한 원샷!*



- 빈혈과 콕시듐증 관리를 위한 세계 최초 원샷 주사제
- 원샷으로 노동력 절감
- 정확한 용량 투여 가능, 확실한 효능
- 검증된 안전성 : 0.9~3kg 범위 내에서 자돈 체중에 상관없이 1.5mL 접종

세바코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220 보정빌딩 702호 Tel: 070-8277-4747 Fax: 02)2203-9491
www.ceva.kr · E-Mail : ceva.korea@ceva.com · 카카오톡플러스친구 : 세바코리아 검색

어떤 수입종돈이 돈을 벌어줄까?



- 수입종돈의 빅데이터 분석으로 맞춤형 교배시스템 제공
- 수입국가별 전체 성적을 분석하여 육종가 제공

최적의 교배조합을
제시하여 농가소득 확대

<돈 벌어주는 형질>
- 90kg 도달일령
- 등지방두께
- 일당증체량
- 복당 산자수



"종돈장 번식용씨돼지 능력평가 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홈페이지 주소: http://saes.aiak.or.kr

KOREA ANIMAL IMPROVEMENT ASSOCIATION
사단법인 한국종축개량협회
종돈개량부 02-588-9301(내선 300-399)

위가 건강해야 잘 먹고 잘 큰다!

낮은 섭취량과 증체량에 애쓰고 계신다면

프리미엄 위 궤양 개선제

StayVill®

스테이빌



애쓰지 말고, 애 쓰세요

BRD
(주)비알디코리아

[18471]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21길 10(영천동, 더퍼스트타워) 1406호

Tel. 031-714-3377 Fax. 070-7601-3127

Email. bio@brdc.biz www.brdc.biz

영농조합법인 **서해농장**

대표이사 이 정 학

주소 : 충남 보령시 주교면 은포리 176
전화 : (041)931-3161 | 팩스 : (041)931-3162
E-mail : uga8011@naver.com

‘(사)한국양돈연구회 - 월간 Pig&Pork한돈’ 간에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PARTNERSHIP
파트너십 협약

협약기간

2020년 6월 1일 ~
2022년 2월 28일

협약내용

- ▣ 회원들에게 ‘월간 Pig&Pork한돈’(매월 200부) 협찬 제공
- ▣ 회원들에게 ‘일간 Pig&Pork한돈 News’ 메일링 전송 서비스 제공
- ▣ ‘양돈연구’ 책 등 발간업무 제작 지원(편집 · 인쇄 등 발간 대행)

W: WOOSUNG

늘 **앞서**가는 이유가 있다?!

우성사료 이지오픈 전제품 확대

안전하게!
편하게!
쉽게!



Easy open



실은 이제 그만!

맨손으로 오픈하세요.

칼, 가위 사용 X

양돈 동물복지의 시행착오와 정착 사례



김 문 조 대표
더불어행복한농장

1. 농장 소개

더불어행복한농장(양돈 동물복지 1호 농장)

- **대　표** : 김 문 조
- **주　소** : 경남 거창군 위천면 당산리 790
- **사육두수** : 2,500두
- **농장면적** : 14,850㎡(4,500평) / 건축면적 3,630㎡(1,100평)

2005년도 모돈 50두 재래식 농장을 인수하여 2012년도까지 전체 규모 1,000두 규모로 경영하였다. 2010년도에 동물복지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임신군사를 도입하였고, 2012년 7월부터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무분만틀 사육방법과 비육돈까지 동물복지를 도입하게 되었다.

앞으로의 양돈산업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성 인식 증가로 사육환경에 대한 개선이 사육농가의 생산성에도 부합되는 신기법의 접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행복한농장은 처음 도입하는 동물복지형 농장 모델로 시행착오는 다소 있었




지만, 동물복지 농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확신한다.

2. 시작 동기

특별한 계기는 없었지만 양돈업에 종사하면서 간접적으로 접하는 정보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것과의 차이가 늘 궁금증으로 남았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체계적인 교육이 부족하고 현장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연구 활동이 부족함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대학을 졸업할 때 양돈산업 현장은 규모나 깊이 면에서 다른 산업과 같이 영세하고 열악한 환경이었다. 그러나 선진국의 양돈산업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성장하고 발전



하는 반면, 한국 양돈산업은 현장에 중심을 둔 연구 개발과 과학적인 컨설팅이 부족한 까닭에 지속적인 성장이 되지 않음을 알게 되었고, 관리자 생활 때 선진국 사양기법을 현장에 적용하면서 더욱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란?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 · 돼지 · 닭 · 오리농장 등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3. 시행착오 과정

초기 단계는 물론 동물복지가 아니었다. 1990년대 후반 지금의 전화번호 끝자리를 3024(2.4회전 30두)로 바꾸면서 생산성을 유럽의 상위 5%를 목표로 삼고부터 현재의

동물복지농장이 지켜야 할 핵심 8가지

1. 모돈 스톨사육 금지
2. 모돈에게 깔짚 제공
3. 자돈 꼬리 자르기 금지
4. 자돈 견치 자르기 금지
5. 스트레스 적게 널찍한 사육 공간 확보
6. 수의사 처방 없이 항생제 사용 불가
7. 청결한 위생관리
8. 무항생제 사료 및 청결한 급수관리





농장을 운영하면서 2010년경 유럽의 동물복지제도를 접하고, 임신돈 군사사육을 과감하게 시도하였다.

사전 정보와 매뉴얼 없이 시작한 임신돈 군사사육은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 돼지의 기본적인 습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들이었다.

군사급이기 시설만 믿고 이유와 동시에 군사 그룹 사육을 하면서 임신모돈의 생산성이 40%(분만율 지제 사고) 정도 감소되었고, 유지관리를 위한 추가 노동력과 비용 등이 경영이 어려울 정도로 피해가 발생하였다.

모돈 200두 농장에 후보돈까지 다섯 대의 군사급이기를 동시에 설치하면서 정부의 지원 없이 초기의 설치비용도 문제였지만, 생산성 저하가 두려움으로 다가올 정도였고, 다시 관행 사육으로 돌아가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었다.

4. 정착단계

시행착오 과정에서 북미 쪽 동물행동학 연구 보고서를 접하게 되었다. 연구 보고서의 내용이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지만, 제한 급이를 하는 동물에서 먹이에 대한 접근성이 스트레스와 생산성에 미치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특히 돼지의 경우 제한 급이(2~3kg/두)를 하는 임신돈일 경우 사회성(서열)도 관계되고 있어 원초적인 본능인 먹이에 대한 환경은 생산성과 직결됨을 알게 되었다.

보고서의 내용으로는 제한 급이 시 10두/구를 초과할 때 스트레스 증가와 사회성(서열)이 무너진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존에 원피딩 군사급이기보다는 두당 수용두수를 늘릴 수 있는 프리스톨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고, 운 좋게도 때마침 원피딩 군사급이로 교체하는 농장에서 무상으로 프리스톨을 구할 수 있었다.

프리스톨 교체 후 조금씩 돈군도 안정을 되찾았고, 그로 인하여 생산성과 경영도 정상화되기 시작하였다.

국내에 인증제도가 도입되기 전 3년 정도의 시행착오 끝에 임신돈 군사가 안정될 무렵인 2012년도에 기존의 낡은 돈사시설을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하여 분만사와 자돈사, 육성, 비육 구간까지 동물복지 형태로 전환할 수 있었다.

임신돈 군사보다는 시행착오가 적었지만, 분만사의 무분만틀도 설치 후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튼튼함을 강조한 나머지 콘크리트 구조물로 제작되어 구조변

임신돈 군사 – 급이기 형태

초기	현재
원피딩 – 40~50두/구	프리스톨 – 5~6두/구
	

임신모돈의 특성

- 개체 관리 → 제한 급이(2~3kg)
- 원초적 본능 → 먹이의 접근성
- 사회적 관계 → 서열투쟁
- 생산성 → 분만율(유산, 지제 사고)
- 만족도 → 돼지의 기분

경이 어려웠고 투자비용도 부담이었다.

2012년부터 2020년 초반까지 기존 무분만틀로 유지하다가 동물복지의 완성도를 생각하게 되면서 2020년 6월 선진국(덴마크)의 복지 분만틀을 수입하여 설치하게 되었다.

초기 분만사(특허출원)



분만사 관리 포인트

- 관리자의 편의성 – 콘크리트 고정 설치물
- 분만 초기 압사 방지 – 바닥 고정
- 사회적 관계 – 모돈과 자돈의 교감
- 급이기의 환경 – 접근성
- 자돈의 먹이 접근성 : 이유 시 체중의 균일

이유 후부터 비육단계까지도 시행착오는 있었다. 사계절이 뚜렷한 국내의 환경에서 이상 행동(꼬리물기)과 비육군사 돈군에서 출하 선별 등 관행 사육에 없는 과외 업무도 부담이었지만, 현재는 시설 투자와 운영 경험으로 돼지 고유의 습성과 행동을 고려한 적정 면적과 깔짚(왕겨+보릿짚)을 활용하여 완벽하지는 않지만 문제점을 많이 보완하여 운영되고 있다.

동물복지 육성/비육사



돼지 고유의 특성

- 청결성 → 면적(분변자리 구분)
- 굴토성 → 깔짚(이상행동 – 꼬리물기)
- 사회성 → 위축돈 발생률(서열 인식)

5. 인증제도의 문제점과 생산자의 선택

2010년부터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동물복지 인증제도를 유지해온 개별농가가 바라보는 '동물복지 인증제도'에 대한 견해

첫째, 국가가 인증제도를 도입하면서 인증기준보다 생산농가가 쉽게 도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과 그렇게 생산된 최종 생산물에 대한 시장 확보가 우선되었어야 한다.

둘째, 국내 환경에 맞는 독자적인 동물복지 인증제도의 수립이 필요하다.

동물복지의 조건

◆ 자돈 및 육성단계 사육조건

체중(kg)	최소 휴식공간 면적(㎡)	최소 소요면적(㎡)
10 이하	0.1	0.15
10~20 미만	0.13	0.2
20~30 미만	0.2	0.3
30~60 미만	0.36	0.55
60 이상	0.66	0.1




임신돈 및 웅돈 사육조건

구분	최소 휴식공간 면적(㎡)	최소 소요면적(㎡)
후보돈	0.92	2.3
임신돈	1.3	3.0
웅돈	–	6.8




생산농가 입장에서 동물복지 인증제도의 질문

모든 생산자는 소비자의 의향을 무시할 수 없기에 현재 도입된 동물복지 인증제도의 미래를 생산자 입장이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준비하고 대안을 고민하고, 시장의 요구가 있을 시 양돈 생산과정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국민의 안전한 식량자원으로 상생하는 양돈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7월 5일 첫 출시!!!

